

# “당신의 전설은 계속 살아 있을 것”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 별세... 추모 물결 이어져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카를 라거펠트(86)가 1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텔런트 송해교(38)와 패션모델 한혜진(36) 등 국내 스타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송해교는 20일 인스타그램에 “편히 쉬길 바란다”면서 고인과 함께한 작업물을 올렸다.

이 화보는 2012년 3월 출간된 샤넬 사진집 ‘더 리틀 블랙 재킷’에 실렸다. 당시 라거펠트는 수많은 스타들 중 송해교 사진을 직접 찍었고, 대만에서 열린 전시회의 메인 화보가 됐다.

한혜진은 “2006년 파리에서 처음 그의 무대에 올랐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며 “팬으로서, 모델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다. 그가 없는 팬디와 샤넬을 상상하는 건 힘들지만 그의 마지막 컬렉션들이 잘 마무리되길 기도한다. 이제 마드모아젤 코코의 곁으로 또 한 명의 전설을 보내며 존경과 사랑으로 그를 추모한다. 칼, 편히 쉬길”이라고 전했다.

라거펠트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2012년 그를 ‘슈퍼주니어’의 최시원(32)이 미국의 패션 월간지 화보 모델로 발탁했을 때 포토그래퍼로 참여했다. 2015년에는 ‘빅뱅’의 지드래곤(31)을 샤넬 컬렉션에 초대, 스페셜 에디션을

선물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문재인(66)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65) 여사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국민 방문 때 고인이 디자인한 한글 무늬 재킷을 입어 화제를 모았다.

‘샤넬의 뮤즈’로 활약한 모델 수주(33)는 인스타그램에 “당신은 나의 삶을 바꿨다”며 “당신을 존경하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남겼다. 아울러 라거펠트와 함께 런웨이를 걷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모델 혜 박(34)은 고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고맙고 그리울 것”이라며 “편히 쉬라”고 추모했다. 모델 아이린(32)과 정호연(25)은 “많은 영감을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들 ‘갯세븐’의 잭슨(25)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47)은 “편히 잠들길 바란다”며 슬퍼했다. 가수 하리수(44)는 “덕분에 멋진 패션을 보며 입으며 살았다. 감사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다”고 했다. 텔런트 진재영(42)도 “한 시대를 풍미한다는 건”이라며 “감사하다”고 했다.

할리우드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배우 데인 드한(33)은 인스타그램에 “당신은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당신의 전설은 계속 살아남아 있다”고 남겼다. 린제이 로한(33)은 “가슴 아프다. 많은 것이 고마웠다”며 고인을 기렸다. 패션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인 가수 박토리아 베 린(45)은 “정말 슬프다. 그는 천재였고, 개인



적으로 일적으로 항상 친절하고 관대했다”고 추모했다.

독일 태생의 고인은 1955년 피에르 발망의 보조 디자이너로 패션계에 입문했다. 1983년부터 샤넬에서 활동했으며, 샤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지난 1월 파리의 연례 샤넬 오트 쿠튀르 쇼에 얼굴을 비추지 않아 건강이상 관련 소문이 돌았다.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뉴스

## 소설로 밝히는 충무공 죽음의 비밀

정호영 국방일보 기자 '광해와 이순신' 출간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본 광해는 멀리서 불타는 대궐을 보자 외락 눈물이 솟구쳤다. 참담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백성을 버린 나라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였다. 임금인 선조를 비롯해 조정 중신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힘겹게 발길을 재촉했다. 불길은 삼시간에 걸쳐 조선 200년의 역사가 담긴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차례로 탔다. 광화문 앞 형조와 장예원도 불길에 치솟았다”

정호영 국방일보 기자가 ‘광해와 이순신’을 냈다. 임진왜란을 주무대로 조선의 현실, 정치상황을 파헤친 소설이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역사의 분수령이 된 일대 사건이다. 이후 17세기 초중반까지 일본과 중국은 임진왜란 여파로 격변기를 겪었다. 이때 새롭게 태어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와 중국의 청나라는 19~20세기로 이어졌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통일한 절대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했지만 실패했다. 그 여파로 가문은 멸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자가 되어 에도막부를 열었다. 조선을 구하기 위해 원병을 보낸 명나라 또한 전란의 후유증으로 민중에서 세력을 키운 누르하치의 후금(후날 청나라)에게 중국 대륙의 패권을 넘겨줬다.

“사방 천지가 폭음으로 진동했다. 조총과 포탄이 난무하고 거친 함성과 함성이 뒤엉켜 어느 한쪽이 끝까지 날 때까지 치열하게 부딪쳤다.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처절한 격전이었다. 단발머리인 비명과 외침이 성 안팎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뿌연계 새벽이 다가왔다. 밤새 계속된 전



투로 사방천지가 비릿한 피로 가득 채워졌고,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널브러졌다”

정씨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1598)에서 돌아가신 지 올해로 421주년”이라며 “지금까지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임이 없고 했다.”

“자살설과 은둔설 등이 그것이다. 전사라는 역사적 기록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와 역사적 기록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순신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밝히고 싶은 욕심이 소설을 쓰게 했다” 416쪽, 1만5800원, 하다 /뉴스

## 무한한 잠재력 깨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승리

‘변화의 시작 5AM 클럽’ 번역·출간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똑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제의 행동방식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죠. 성장과 발전, 개인적 향상의 기회를 모두 저지하면서 평범함에 안주하고 순응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변신이 쉽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빛나는 내비의 삶을 살려면 애벌레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당신이 죽어오면 최상의 당신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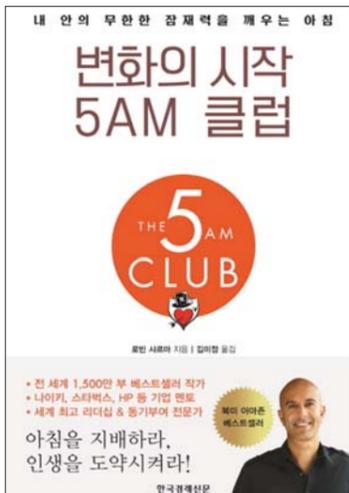
‘변화의 시작 5AM 클럽’이 번역·출간됐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더 큰 성공을 꿈꾸는 화가와 위기에 몰린 사업가가 노인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두 사람은 노인의 말에 감화된다.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난다. 노인은 두 사람의 멘토가 되어 삶에서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 부·명예·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5AM 클럽’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변화된 자신과 마주한다.

전반부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변화의 궁극적 목적과 동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면, 후반부에서는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전략을

설명한다. 핵심은 남들이 잠자는 시간인 ‘아침 5시’를 변화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침 5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오며 하루를 승리로 시작했고, 하루를 더 길게 활용했다. 크고 작은 업무와 자잘한 격정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모든 위대한 천재는 놀기를 아주 좋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놀이가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편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여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슈타인은 요트 타기를 즐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찰스 디킨스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할리우드 슈퍼스타인 메릴 스트립은 뜨개질을 하곤 했으며,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폴로 경기를 했고, 빌 게이츠는 브리지 게임의 고수였으며,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공중그네를 타곤 했습니다.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세계의 위인들은 이른 아침 시간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보냄으로써 폭발성을 피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규율은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삶 자체를 음미하고, 창의력의 저장고를 다시 채우고, 최상의 자아를 개발하고, 주



어진 축복을 헤아려보고, 인간적 덕목을 쌓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줍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촉진한 사람들은 대부분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빈 샤프마 지음, 김미정 옮김, 343쪽, 1만6000원. /뉴스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1곳당 국비 3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3월 19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지역에 공공이동이 가능한 장소를 문화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추진해 왔다.

2018년 ▲경북 포항시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부산 영도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는 18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한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 쇠퇴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사업비(1곳당 국비 3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대상지역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사업지 선정에 관한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문화재생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연관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최종 사업지 선정 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한다.

이번 사업 공모는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협력 기관이나 단체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공모하려면 3월 15~19일 접수 기간에 공지된 주소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공모 신청 방식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